

유민종 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취임

글 강진성 | 승인 2022.01.17 18:10

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에 유민종(55) 전 합천지사 농지은행부장이 지난 13일 취임했다. 유지사장은 거제 출신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해 거창·함양, 밀양, 진주·산청, 합천지사 농지은행부장 등을 거쳤다.

유지사장은 "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지역 농어업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또 "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ESG 경영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,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직장조성 등에 앞장서겠다"고 말했다.

문병기기자



저작권자 © 경남일보 -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강진성